다산포럼

헌쇠와 위공(爲公)

김정남
언론인

'헌쇠'와 '위공(爲公)'은 각각 전 추모연대 의장 박중기와 실크로드학, 문명교류학을 개창(開創)하고 있는 정수일의 아호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금년 11월에는 두 개의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다. 1934년생으로 팔순을 맞은 헌쇠 박중기의 산수(傘壽) 문집 및 '헌쇠 80년'의 출판기념회(11월 5일)와 위공 정수일의 '실크로드 사전', '실크로드 도록'(육로편) 출간 및 산수를 기념하는 모임(11월 19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박중기의 '헌쇠'라는 아호는 그가 고철장사를 할 때 범하(凡下) 이돈명 선생이 지어준 것으로, 장난기가 있어 보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위아래 사람으로부터 더 친숙하게 불려졌다. 양질의 쇠를 얻으려면 선철만 가지고는 안되고, 헌쇠가 꼭 반 이상 섞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헌쇠'에는 담겨있다.

1974년 4월, 박중기가 어떤 사건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석방되던 날, 그의 오랜 동료 이수병과 김용원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검거되어, 그 이듬해 4월 9일 처형되었다. 이로부터 박중기는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 특히 경기여고 물리 선생을 하던 김용원이 자기 대신 죽었다고 괴로워한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에서 브레히트의 화자는 죽은 친구들이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고 속삭일 때 "자신이 미워졌다"고 말한다. 박중기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고, 살아남기 위해 비겁하지도 않았다.

죽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한참 뒤, 상처투성이의 지친 몸으로 박중기는 그들 가족 앞에 소리없이 나타났다. 어느 해 겨울에는 백화점에서 동료의 아들에게 외투를 사 입혔고, 외식 한번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탕수육에 자장면을 사 먹였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입학금이 든 봉투를 그들의 손에 쥐어 주었다.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망연해하거나 방황할 때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 주었다.

어디 이들에게 뿐이랴. 박중기는 60년대 이래 우리 시대가 짊어져야 할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고,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곁에 없는 듯 있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다.

그는 연탄재처럼 자신을 태워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있어 조금은 슬픔과 고난을 덜 수 있었고, 그가 있어서 위로받았으며, 그가 있어 행복했다. 그것이 '헌쇠 80년'이다.

정수일은 1996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로부터 2주 뒤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0년에 출감했다. 감옥에서 그는 약 2만5000매의 원고를 썼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을지언정 학문을 귀히 여겨 감옥에서의 집필을 허가했고, 판사는 사형이라는 '인위조작적 유한'의 형을 '자연순환적 유한'의 형으로 바꿔주었다. 정수일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수일은 일찍부터 삶의 화두를 "시대의 소명에 따라 지성의 양식으로 겨레에 헌신한다"는 것으로 삼았다. 그의 학문과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여기에 닿아있다.

그는 동서문명의 대동맥인 실크로드가 중국까지 와서 멈춘 것으로 되어있는 통념을 깨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통념대로라면 한반도는 문명세계와 동떨어진 곳이 되어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세계 밖의 한국'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스탄불·경주 문화엑스포' 개막식에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경주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이고, 이스탄불은 끝지점"이라고 선언했다. 마침내 통념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정수일은 실크로드학, 문명교류학이라는 학문의 초야(草野)에 '대한민국 정수일'이라는 푯말을 곳곳에 세워놓았다. 그의 저술 하나하나가 그러한 푯말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출간한 '실크로드 사전'과 '실크로드 도록'도 단순한 사전이나 도록이 아니라, 정수일의 80 평생 학문적 천착과 삶의 화두가 담겨있는 '정수일 표 문명교류학 사전이요, 도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1월 19일, 정수일은 자신에게는 아직도 두 개의 꿈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문명교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 활짝 꽃피우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남북의 통일이라는 것이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필마단기로 엄청난 학문적 업적을 일구어냈지만,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우리가 그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경제의 복잡성과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 대비 지방의 사무와 재원은 20%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역경제의 위축과 산업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인구의 유출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 부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사무 등의 증가로 오히려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현실적 과제를 안고 지난 9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본 위원회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는 주민 행복과 지방발전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2할 자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사무의 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로 높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23일 제1차 위원회 회의 시에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토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과제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해안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부각시켰으며, 3년 연속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개최로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실현하여 괄목할만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의 유능한 인재가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나아가 전남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선순환 하는 체계,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회가 지향하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지역문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적석천(水滴石穿)', 즉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말처럼 이번 토론회가 지역발전의 작은 씨앗이 되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에 전남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제언이 있으면 기탄없이 본 위원회에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두 바퀴로 나만의 여행을 떠나자

신태욱
전남도 지역계획과장

지금으로부터 195년 전, 독일의 드라이스(Drais, K.B.von)라는 백작이 목마의 바퀴를 개량하여 만든 드라이지네(Draisine)가 자전거의 원조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지네는 사람이 발로 땅을 차면서 나가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자전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자전거가 들어왔을까.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1883년에서 1895년 사이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자행거(自行車)라고 불렸다고 한다.

자전거는 당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멋쟁이 신사들이 즐겨 이용했다. 자전거가 처음 도입된 후 10여년 만에 자전거 관련조문이 '가로관리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당수의 자전거가 보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자전거 상인들이 자전거를 판매하기 위해 많은 상금을 걸고 자전거 대회를 자주 열었고 그때마다 수만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암울했던 1920년대 자전거 대회에서 일본인들을 물리치고 매번 우승을 거머쥔 염복동의 유명세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과 함께 노래로 불려지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떳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 염복동의 자전거'라는 동요가 바로 그들이 민족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려준다.

멋쟁이 신사들의 필수품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던 자전거가 민족의 자존감 회복과 함께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통계로 확인해보면 해방 후인 1946년 서울 인구가 201만 명이었고 자전거 수는 2만9507대였으며, 이듬해에는 5만2451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자전거를 모두 수입하였다.

이처럼 자전거를 생산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1944년 자전거 관련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돼 드디어 1952년 국내 최초로 완성 자전거 생산을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파이프가 생산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자전거를 생산한 지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자전거는 용도와 연령에 따라 그 종류도 자동차만큼이나 다양해지고 가격 또한 일반 자동차와 엇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졌다. 다양한 제품과 함께 스포츠, 레저로서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전거 선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선 전문적인 자전거보다는 라이딩에 편안하고 저렴한 자전거라면 어느 것이라도 충분하다.

이제 성큼 다가온 겨울의 문턱에서 추위에 움츠리기보다는 건강한 체력과 계절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자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상의 조건을 갖춘 '최고의 자전거 코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노선을 달려볼 생각이다.

맑은 섬진강과 햇살에 빛나는 은빛 모래톱 너머 민족의 명산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섬진강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이 빚어놓은 풍경에 탄성이 절로날 것이다.

추위를 떨쳐버리고 힘차게 달리는 그 기분은 라이딩을 즐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낙농가, '콜라맛 우유' 같은 발상의 전환 필요

우리 전라남도의 드넓은 초원과 낙농가에서도 많은 우유가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우유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낙농가들도 걱정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밥을 적게 먹기 때문에 쌀의 소비가 줄어들어 쌀값이 폭락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거기다가 학생들도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유를 기피하고 잘 안 먹어 우유소비를 줄이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접한 뉴스의 내용을 좀 전하고자 한다.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탄산이 함유돼 콜라맛이 나는 우유가 선보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뉴질랜드 낙농업자 리처드 레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개발한 탄산 우유제품 'mo2'를 시장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우유 시장에 대한 큰 변화는 물론이고 상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우유와 탄산음료가 섞여 콜라맛이 나는 걸 개발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mo2는 95%가 우유고 설탕이 첨가되며 콜라나 사이다 맛이 나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에너지 음료인 '레드 불'이라는 청량음료가 큰 인기를 얻은 데서 착안했다며 맛만 콜라 맛일 뿐이지 그 내용물의 95%가 우유라고 하니 낙농가들에게는 희소식이고, 영양 측면에서도 더는 바랄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저지방 우유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우유 맛이 많이 나지 않고 청량음료 맛이 난다니 그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기대가 된다. 나중에는 초콜릿이나 딸기 우유 등 전통적인 과일 향 우유 제품도 현재 개발할 예정이란다.

농산물은 이렇듯 무한한 변신이 가능하다. 한가지 상품이 대박이 나면 거기 따르는 농산물의 판매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뉴질랜드의 평범한 낙농가의 사례를 본받아 우리도 새로운 농산물 가공품을 끊임없이 개발하자.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예측 빗나간 농정에 농민들만 멍들다니

정부가 농산물의 수요·공급 예측을 잘못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배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 값이 해마다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농심(農心)만 멍들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의 주요 농산물인 가을배추만 하더라도 생산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하다. 올해는 배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듣고, 상당수의 농민들이 일찌감치 배추농사를 포기하거나 심어 놓은 배추밭도 방치했다니 말이다. 하지만 정부 예측과는 달리 배추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올해 해남지역의 가을배추 재배농가는 2583호, 재배면적은 1547ha로, 이는 지난해 2636호 1443ha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해남군은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 11만4000여 톤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늘어났지만 배추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에 밭떼기로 계약한 농민들은 헐값에 상인들에게 배추를 넘겨 상대적으로 손실이 더 컸다고 한다. 배추값은 소매가 10kg 기준으로 ▲2011년 2361원 ▲2012년 8264원 ▲올해는 6964원으로 폭락 내지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김장철을 맞아 점차 오르고 있어 밭떼기 상인들만 재미를 보게 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어느 해는 폭락해 밭을 갈아 엎고, 어느 해는 치솟아 생산자,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가격 조절에도 실패한 데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몇 군데 밭을 찍어 표본조사 방식으로 예측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에서 이장이나 통장들로부터 수집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더해 공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후진적인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만 끼칠 텐가.

신병에 노부부 자살, 우리 사회는 뭘했나

목포에서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부인과 부인을 돌보다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인 80대 남편이 동반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삼켰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사회는 뭘 했는지 자문하고, 반성할 일이다.

지난 23일 오후 3시40분께 목포시 죽교동 A(82)씨의 단독주택 1층에서 A씨와 부인 B(6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장김치를 전해주러 들른 사위가 발견,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안에는 연탄 2장이 다 탄 채로 있었고, 방문은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비닐 등으로 덮여 있었다.

거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고통받는 집사람과 함께 떠나겠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자살률 또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우울증 등이 동반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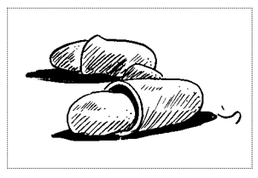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복지 수준은 노인들에게는 가혹하다. 실태 자료도 없고, 혜택 역시 제한되어 있다. 정작 필요한 가정간호 서비스나 방문 건강관리와 같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맞춤형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갖춰 현실적인 보호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와 공공병원 등이 연계해 집안에 방치된 노인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노인질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無等鼓

나주박물관

학창시절, 국사시간에 옹관묘(甕棺墓)를 처음 배울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애장터'였다. 어머니의 말씀인즉, 전염병 등으로 인해 죽은 어린아이들(애)을 묻은(藏) 터가 고향 마을 북쪽 산기슭에 있다고 했다. 그곳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애지중지하던 아이들을 잃은 부모가 자그마한 항아리에 주검을 넣어 묻는 모습이 연상돼 애잔한 마음이 들곤 했다.



누구나 옹관을 처음 접했을 때 크기에 압도된다. 초창기인 1세기께는 작은 단지 정도의 크기지만 3세기 무렵 전성기에는 2~3m에 달하는 대형으로 발전했다.

광주 신창동·하남동, 나주 복암리 3호분, 함평 송산 유적, 영암 옥야리 고분 등 대표적인 옹관묘는 모두 영산강 유역에 집중돼 있다. 백제의 직접 지배를 받기 전까지 이 지역을 다스렸던 마한 수장층의 독특한 묘제로, 왕릉과 같은 커다란 봉분이 눈길을 끈다.

계란과 같은 알 모양(卵形)을 한 옹관은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부장품 역시 생과 사를 단절로 보지 않는 축조집단의 사생관(死生觀)에 따라 생전에 쓰던 실용품을 넣었다.

나주 복암리 3호분 3호옹관에서 출토된 2인의 인골은 유전자 분석 결과, 모계가 동일한 친족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영산강 유역 마한시대의 옹관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퍼즐을 맞추듯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 나주박물관이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자미산 자락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튿날인 23일 오후 찾은 박물관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단위 탐방객들로 북적였다. 일제 강점기인 1917년 나주 신촌리 9호 분에서 발굴됐던 금동관(국보 295호)과 금동신발을 비롯해 20여 점의 대형 옹관 등 상설 전시실의 많은 유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마한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었다.

역사교육은 단순히 암기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입시에 목매는 학생들과 탐방객들이 이곳에서 영산강 유역의 역사 향기를 듬뿍 누렸으면 싶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